

아브라함의 믿음의 훈련

로마서 4 : 19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로마서 4 : 20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로마서 4 : 21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로마서 4 : 22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오늘은 전주에 이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훈련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훈련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믿음은 단번에 장성한 분량에 까지 이르지 않는다는 것과, 실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매달리는 자만이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쓰임을 받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1차로 부름을 받았지만 이런 인본주의 세속주의 물질만능주의에서 떠나지 않고 15년간을 하란에서 살았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둘째 문제이고,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이 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만도 큰 일을 하는 것이라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온전한 분량에 이르기 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I. 하나님의 2차 부르심과 아브라함의 태도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재차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 대한 2차 부르심입니다.

창세기 12:1을 다시 보십시오.

창세기 12 : 1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십시오.

창세기 12 : 4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좇아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칠십 오세였더라

창세기 12 : 5 아브람이 그 아내 사래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 갔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떠나라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다 가지고 떠납니다. 인본 주의, 세속주의, 물질만능주의를 떠나라고 하시지만 아브라함은 이런
것을 모두 다 가지고 떠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질을 소유하는 것, 친척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영적 상태가 바로

창세기 12 : 4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좇아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칠십 오세였더라

창세기 12 : 5 아브람이 그 아내 사래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 갔더라 고 하는데 표현되어 있습니다.

II. 인본주의, 세속주의, 물질만능주의에 대한 정의

여기서 우리는 인본주의, 세속주의, 물질만능주의에 대해 다시 정의를 하고 가십시오.

인본주의라 함은 신본 주의의 반대로, 인간을 최고로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며, 인간의
이성을 그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세속주의는 경건주의의 반대로 영적 즐거움보다는 육적 쾌락을 추구하는 삶의 스타일을 말합니다.

물질만능주의는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더 중요시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III. 아브라함이 만난 첫번째 훈련은

물질을 의존하는 것을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 물질 만능 주의의 포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 갔을 때 이것이 제일 먼저 다가 왔습니다.

,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고 물질을 더 사랑하고 그것에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사는 것, 이것을 고쳐시는 하나님의 훈련이 제일 먼저 다가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 온 후 얼마 되지 않자 기근이 들어 온 땅이 빨강게 타들어 갔습니다. 끌고 간 모든 가축들이 기근과 갈증으로 인해 모두 죽었습니다.

창세기 12 : 10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기근이 너무 심하여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이끌고 간 모든 소유를 잃고 애굽으로 기근을 피하여 피난을 가게 됩니다. 자기가 의지하고 살던 물질만능주의의 허리가 부러졌습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언제나 세상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때 열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고쳐 주실 것을,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아직도 물질을 의지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는 삶의 태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땅에 믿음으로 계속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그는 아내 사래와 조카 롯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에 내려 가서는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바라보는 아브라함은 애굽인들을 두려워 하여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자기의 아내를 바로의 궁에 들여 보내야 하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사라는 보호를 받아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깊이 깊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시편 127 : 1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숫군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시편 127 : 2 너희가 일찌기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파숫군의 경성함이 헛수고로다”

IV. 물질만능 주의에 대한 아브라함의 승리

이런 시험을 겪고 난 후 아브라함은 신앙적으로 많이 성숙하게 되어 물질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물질만능주의에 대하여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 줍니다.

모든 소유를 다 잃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나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 온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성장한 모습을 모습을 모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창세기 13 : 1 아브람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창세기 13 : 2 아브람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창세기 13 : 3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벨엘에 이르며 벨엘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창세기 13 : 4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 구절은 아브라함의 신앙적 성장을 보여 줍니다.

창세기 13 : 4 에서 그가 거기서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중심 주의, 신앙 제일 주의로 돌아 온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 줍니다. 가장 좋은 신앙 훈련 교재는 실패를 통하여 배우는 것입니다. 실패를 하지 않으면 육은 결코 영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창세기 13 : 5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창세기 13 : 6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창세기 13 : 7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과 롯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므로 땅은 아주 중요합니다. 풀이 많은 비옥한 땅이라야 양을 치는데 좋은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양과 소가 너무 많은데 땅은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자들과 롯의 종자들이 서로 땅문제로 다투게 됩니다. 삼촌과 조카의 종들이 서로 싸우고 있으니 그 지방에 거하고 있던 불신자인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에게도 덕이 안됩니다.

이것은 현대적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금전적 문제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소송을 하며 세상 법정에 호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불신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인들 간에 서로 싸우고 신문에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추태를 부려도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 : 6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고린도전서 6 : 7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전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나

고린도전서 6 : 8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고린도전서 6 : 9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고린도전서 6 : 10 도적이거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은 신앙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재산 문제에 대해 덕스럽게 처신하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3 : 8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창세기 13 : 9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나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것은 참으로 위대한 신앙의 결단입니다.

목축을 하기 위해 좋은 땅이 필요한데, 좋은 땅을 선택할 우선권을 조카 롯에게 주고, 자기는 그 나중 것을 택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V. 물질 만능주의와 세속 주의에 대한 롯의 자세

우리는 여기서 롯의 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롯은 경건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신앙인이라기 보다는 물질만능주의적 세속적 경향이 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롯의 마음은 언제나 세속 주의와 물질 주의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물질적 번영으로 인하여, 방탕과 타락이 극치에 달한 도시였지만, 롯은 그런 곳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롯은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거침없이 물질과 세속 주의를 택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 : 10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였는고로

여호와와 동산 같고 애굽땅과 같았더라

창세기 13 : 11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창세기 13 : 12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창세기 13 : 13 소돔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구사일생으로 살아 났고, 롯의 아내는 세속에 대한 미련으로 뒤를 돌아 보아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은 세속적 그리스도인의 대표입니다. 롯은 함량이 부족한 의인입니다.

VI.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런 신앙의 결단을 내리는 것을 보시고는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3 : 14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창세기 13 : 15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창세기 13 : 16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대 네 자손도 세리라

창세기 13 : 17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창세기 13 : 18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르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하나님 중심으로 서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 줍니다.

아브라함은 일시적으로 시험에 패배했었지만, 거기에서 교훈을 배워 가지고 나온 후로는 멋있게 승리하였습니다. 시험에 승리하자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시험을 통해 성장함으로 영육간에 축복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장성한 신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장기간에 걸친 훈련입니다. 때론 승리할 때도 있지만 패배할 때도 있습니다.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질그릇임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붙잡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재무장 시키시어 다시 싸워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장기간에 걸친 장기전입니다. 절대로 단기전이 아닙니다.

포도주는 오래된 것이 맛이 좋고, 신앙은 오랜 연륜 속에서 많은 연단을 받은 사람만이 빛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즈음 에는 무기력한 교회가 많습니다. 습관성 교인이 무지무지 하게 많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예배 참석하는 것이 신앙 생활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극복하기 위한 진지한 기도가 없습니다.

성경은 교회에 들고 오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더 이상 영의 양식이 담긴 보고가 아닙니다.

영적 성장에 대한 갈구를 느끼지 못하고 귀에 듣기 좋은 설교만 좋아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영적 각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로마서 4 : 20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전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로마서 4 : 21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로마서 4 : 22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한 것은 끊임없는 연단과 훈련 속에서 이렇게 된 것임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에까지 성장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글이나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5 분만 시간을 내셔서 저의 twitter 나 café 에나, Blog 에 가서 소개의 글을 올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읽고 듣게 됩니다.

- Café 명 : 믿음의 향연

<http://cafe.naver.com/Christiansymposium.cafe> 이나

- Blog 명 : 행복의 샘터

<http://blog.daum.net/shk2812> 이나

- * twitter

1. <http://www.twtkr.com> 으로 가서 로그인 하세요.
2. 바울성서 아카데미(spba0708)에 접속하여 Follower 등록을 하세요
(twitter 안에서검색 box 에 spba0708 을 넣으신후 click 하면 접속됨).
3. 내 twitter 의 home 으로 가서 글을 쓰신 후 tweet 하세요.
4. 제가 twitter 에 올린 글(예, example)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씀으로 지배한다는 뜻이고, 우리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으면,
<http://www.stpaulbibleacademy.com/3FCFContents.html>

여섯째주를 공부하시길!

5. Retweet 를 하실 분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home 로 가서, 글을 쓰는 Box 에 RT @ 를 type 하신 후 , space 한 후, Retweet 할 내용을 paste 하시면 됨.